



쥘리, 워싱턴의 틀이

「쥘리·워싱턴」이 치과 질환으로 고생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의 사인도 충치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그가 쓰던 아래위의 틀이는 지금도 미국 메리랜드 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되었는데 그것은 불소의 치아를 조작해서 만든 것이다.

아랫턱의 틀이는 살짝 잇몸위에 놓이게 된 것으로 그 치아 수는 10개이고 윗턱의 그것은 양천정을 전부 덮는 틀이로서 치아수는 12개이다.

그리고 이아래위의 틀이는 서로 나선상의 탄력선으로 어금니의 뒷쪽 부분에서 상하로 연결되어 있다.

즉, 벌어질려고 하는 탄력선의 힘으로 틀이가 잇몸에 밀어붙어 있게 만든 것이다. 틀이 형태는 그래도 오늘의 그것과 꼭 유사한 것이다.

「쥘리·워싱턴」의 틀이는 1799년에 제작된 것으로 동일한 형태의 것이 두쌍 있다. 그중의 하나까지 금까지 보존되는 것이고 하나는 그의 묘소에 함께 매장되어 있다.

이 틀이를 제작한 사람은 바로 미국인 최초의 치과의사로서 유명한 「아이작·그린우드」의 둘째 아들인 「존·그린우드」이다.

사진은 틀이를 낀 사진(1976년작)과 그의 흉상으로 의치 때문에 上下顎間이 짧고 아랫 입술이 함몰된 모습을 넣어 모양을 가추고 그림을 그렸다 한다.



◎ DENTAL TECHNICIAN으로 운영되는 寶城合金은 이 순간에도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 SUPER-A: 신제품으로 7 : 1 금합금의 색상.
- A-TYPE: 황백색의 ORIGINAL TYPE
- B-TYPE: 종래의 B-TYPE
- 28-CAST: 신제품으로 가장 경제적인 백색 합금.
(현재 판매 중인 JWE와 성분용도가 동일함)

寶城合金

전화 : 764 { 3024
3411

서울·종로구 창신동465